

내담자의 핵심적 갈등관계에 대한 해석과 작업동맹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 희 천[†]

서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전이에 대한 상담자의 해석과 상담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이해석은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며 전이해석은 상담성과와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이해석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들은 서로 불일치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담자의 전이해석의 적절성과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협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전이를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로 정의하고, 상담성과에 미치는 작업동맹과 전이해석 적절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3개의 상담사례(86회기)를 수집하였다. 전이해석의 적절성은 세 가지 관점에서(내담자, 상담자 그리고 관찰자 관점) 측정하였으며 각각 전이해석의 일치성, 상응성, 정확성 점수로 평가되었다. 연구결과, 상담성과에 대한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일치성 및 정확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이해석의 적절성은 작업동맹과 상호작용 하여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주요어 : 핵심갈등관계 주제, 전이해석, 작업동맹, 상담성과

신희천은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신 희 천,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전화 : 016-445-3182 E-mail : heecheon@snu.ac.kr

전이(transference)란 과거의 의미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무의식적인 소망과 기대 혹은 좌절 등의 관계경험이 현재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활성화되면서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윤순임, 1995). Cooper(1987)는 “오늘날 분석에 대한 관점들이 대단히 다양하기는 하지만, ‘전이가 모든 것이냐’ 아니면 ‘거의 모든 것이냐’하는 점만이 다를 뿐 전이와 그 해석과정이 분석과정이나 치료의 중심이 된다는 의견에는 분석가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이는 정신역동적 치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전이는 치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Gelso & Carter, 1985, 1994; Ryan & Gizynski, 1971). 한편 Bauer와 Kobos(1984)는 장기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단기 심리치료에서도 전이해석이 결정적인 변화의 수단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내담자의 전이를 상담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내담자가 자각할 수 있게 도와주면, 내담자는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대인관계의 개선과 증상의 완화라는 상담효과를 거둘 수 있다(Joyce, Duncan, & Piper, 1995). 반면에 내담자의 전이를 상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전이관계에 휘말리게 되면, 내담자는 자기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담관계 자체가 갈등적인 관계 패턴의 반복으로 점철된다(Gill, 1982).

하지만 전이해석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과는 달리, 전이해석의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이해석이 긍정적인 상담성가에 중요하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들(Foreman & Marmer, 1985; Fretter, Bucci, & Broitman, 1994; Malan, 1979; Marziali, 1984; McCullough & Winston, 1991; Winston,

McCullough, & Laikin, 1993)과, 전이해석은 상담성과와 관련이 없으며 때로는 해가 되므로 삼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들(Grunebaum, 1986; Hoglend, 1993; Piper, Azim, Joyce, & McCallum, 1991; Strupp & Hadley, 1979)이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

전이해석이 상담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에서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는 한 가지 원인은, 전이해석의 질을 동일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전이해석의 경우에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이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특히 해석 내용이 적절치 못할 경우 긍정적인 상담성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이해석에 관한 선행 연구 중에서는 전이해석의 적절성과 상담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몇몇 연구들이 있다(Joyce, 1992; Joyce & Piper, 1993; Luborsky, Barber, & Crits-Cristoph, 1990; Piper, McCallum, Azim, & Joyce, 1993; Silberschatz, Fretter, & Curtis, 1986). 이들 연구들은 전이해석 내용의 적절성을 ‘상응성’(상담자의 사례공식화와 해석의 일치 정도)과 ‘정확성’(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와 해석의 일치 정도)이라는 개념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적절한 전이해석은 경우에 따라서 내담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상담의 성과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담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인 상담성과와 관련됨을 보이고 있다. 전이해석의 내용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성과를 보이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전이해석의 적절성 이외의 다른 변인들의 개입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예컨대, 상담자와 내담자의 협력관계, 내담자의 통찰수준, 내담자의 자아강도 등). 이런 점에서, 대상관계 수준에 따라 전이해석이 차별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Piper 등(1993)과 Joyce(1992)의 연구는, 내담자의 대상관계 수준이 중재 변인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들은 대상관계 수준에 따라서 전

이해석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대해서
는 추론을 통해 잠정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뿐
이며, 추후 연구에서 정확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의 대안적인 설명은 전이해석이 이루어지
는 시점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협력관계(작업동
맹)가 전이해석의 효과를 좌우했을 것이라는 점
이다.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에 따라 동일한 전이해석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낼 것이며,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형성된 협력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지의 여부가 전이해석의 효
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내담자의 대
상관계 수준은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작업동맹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Ryan & Cicchetti,
1985; 김순진, 1998)로 미루어보아, 대상관계 수준
이 낮은 내담자들은 상담자와 견고한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Gelso와 Carter(1994)는 “작업동맹이 강해질수록
내담자는 긍정적인 전이와 부정적인 전이를 자각
할 수 있게 되고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작
업동맹은 내담자에게 안전감 혹은 보호막 같은
것을 제공하여 치료적 관계가 깨진다는 위협없이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공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굳건한 작업동맹이 전제된 상태에서 적
절한 전이해석이 주어졌을 때 내담자는 깊은 체
험을 하게 되고 자신의 갈등이나 소망,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적절
성이 상담 성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
보고, 작업동맹과 전이해석 적절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방 법

자료수집

자료수집 대상

작업동맹에 따른 상담자의 전이해석이 상담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상담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49명의 상담사례에서 총 327회기의 상담
회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례의 전체 회기 중
에서,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와 상담자의
‘전이해석’이 반영된 회기만을 추출하기 위해, 상
담회기 후에 상담자가 작성한 치료회기점검표
(TSCS; Graff & Luborsky, 1977)의 전이추정 항목에
서 3.0이상(7점척도)이거나, 대인관계 평가척도에서
3.0이상(7점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회기는 제
외시켰다. 최종적으로 43명의 상담 사례(19명의
상담자)에서 각각 2회씩 총 86회기의 상담회기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상담 사례의 평균 상담회기
진행 수는 18.9회기이다.

내담자와 상담자

43명의 내담자의 연령분포는 10대가 1명, 20대
가 38명, 30대가 4명이었으며(평균 24.6세), 이 중
남자는 12명, 여자는 31명이었다. 내담자가 주로
호소하는 문제들은 대인관계 문제(35명, 81%), 정서
문제(31명, 72%), 적응문제(13명, 30%), 이성문제
(21명, 49%), 학업문제(12명, 28%), 성격문제(5명,
11%), 행동 및 습관문제(14명, 33%) 등이었다(복
수응답 허용).

본 연구에 참여한 19명의 상담자들은 남자가 3
명, 여자가 16명이었으며, 연령은 30대가 13명, 40
대가 6명으로, 30대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상담자들의 상담경력은 평균 8.9년이었으며,
이들은 평균 167사례의 상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는 7명,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는 2명이었으며,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과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상담자가 1명, 나머지 9명은 상담심리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들로서 자료가 수집된 시점에서 모두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다. 상담자들의 이론적 접근은 정신역동적 접근(6명), 절충주의적 접근(12명), 현실치료적 접근(1명)이었다.

측정도구

전이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의미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무의식적 소망과 기대 혹은 좌절 등이 현재 여기의 대상(예컨대 분석가)과의 관계에서 활성화되면서 반복되는 현상(윤순임, 1995)’이라는 정의를 따르고, 상담과정에서 진술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관계일화)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갈등관계주제(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이하 CCRT)로 전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핵심 갈등관계 주제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소망, 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반응, 그리고 자신의 반응으로 구성되는 일정한 갈등적 관계패턴이 타인들(상담자를 포함한)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CCRT방법으로 평정된 점수로 측정된다. 김수현(1995)은 내담자의 다양한 문제들이 심리치료 장면에서는 대인관계 맥락 상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러한 내담자의 대인관계 양상을 정신분석에서는 전이개념으로 설명하였고 이런 점에서 CCRT는 Freud의 전이 형태와 유사하다고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Luborsky와 Crits-Christoph(1998)의

『Understanding Transference-핵심갈등관계 주제방법』의 CCRT 측정 매뉴얼을 따른다. CCRT는 상담상황이나 밖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역동이나 전이의 특성으로서 관계패턴에 초점을 맞추는데, 한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중심되는 관계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관계패턴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먼저 평정자들이 상담 녹어록에서 내담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관계일화(relational episode)를 추출한다. 추출한 관계일화에서 1) 내담자가 타인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내담자의 바램(wish, need, intention) 2) 타인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response from other) 3) 타인의 반응에 대해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response of self) 하는 세가지 요소에서 CCRT를 추론하여 평정하게 된다. 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CCRT평정 앞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를 측정한다.

김수현(1995)은 CCRT방법은 분석방법과 지침이 세밀하고 객관적이어서 평정결과를 수량화 할 수 있으며, 비록 상담초보자라 할지라도 연습과정을 거치면 CCRT를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적하면서, 평정자간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Barber와 Crits-Christoph(1993)은 ‘소망’의 Kappa값을 .91, ‘타인의 반응’은 .70, 그리고 ‘자신의 반응’은 .61로 대체로 만족스런 평정자간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하정혜(1994)는 평균 평정자간 일치도(Cohen's Kappa)를 ‘소망’ .70(.67 ~ .73), ‘타인의 반응’ .73(.69 ~ .75), ‘자신의 반응’ .68(.68 ~ .75)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CRT매뉴얼의 권고에 따라 관계일화 평정자와 CCRT평정자를 따로 두었다. 측어를 통해 관계일화를 평정하기 위해 다섯명의 코더(임상상담전공 석사과정)가 참여하였으며, CCRT의 평정에는 4명의 평정자(상담전공 석사 3

명, 박사수료 1명)가 참여하였다. 평정자간 일치도는 관계일화 평정에서 완결성은 $r=.64 \sim .85$ 였으며, 관계일화의 시작과 끝의 구획 일치도는 시작 60%, 끝 60%에서 일치율을 보였다. CCRT평정에서 평정자간 일치도는 ‘소망’(Kappa=.66 ~ .77), ‘타인의 반응’(Kappa=.31 ~ .54), ‘자신의 반응’(Kappa=.43 ~ .77)을 보였다. CCRT평정의 일치도는 대체로 만족스런 수준이었다. Landis와 Koch(1970)은 Kappa값을 사용하여 일치도를 구할 때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Kappa값의 범위가 0 ~ .39는 낮은 일치도를 의미하며, .4 ~ .74는 만족할만한 일치도를, .75 ~ 1까지를 훌륭한 일치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평정자들은 대체로 만족할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고 평가된다.

전이해석의 적절성 평정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의 내용을 상담자가 적절하게 해석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와 상담자의 전이해석에 포함된 핵심갈등관계 주제가 일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전이해석의 적절성은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를 파악하는 입장에 따라 일치성(내담자), 상응성(상담자), 정확성(평정자) 점수로 산출한다. 전이해석의 일치성(congruity)은 내담자가 작성한 자신의 핵심갈등관계 주제와 상담자의 해석반응에서 언급된 핵심갈등관계 주제가 부합하는 정도를 말하며, 전이해석의 상응성(correspondence)은 상담자가 작성한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와 상담자의 해석반응에서 언급된 핵심갈등관계 주제가 부합하는 정도를 말한다. 끝으로 전이해석의 정확성(accuracy)은 제 3의 평정자가 축어록을 통해 평정한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와 상담자의 해석반응에서 언급된 핵심갈등관계 주제가 부합하는 정도를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평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상담자의 전이해석 반응에 포함된 핵심갈등관계 주제의 요소들(‘소망’, ‘타인의 반응’, ‘자신의 반응’)을 CCRT방법으로 평정하도록 한 뒤, 내담자의 CCRT와의 차이 정도를 전이해석 적절성의 지수로 삼았다. 이러한 측정방법은 평정자의 주관적인 추론과정을 단축시키고, 내담자의 CCRT에 대한 정보없이 맹목(blind) 상태에서 평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상담자 해석반응에 포함된 CCRT(5점 척도)와 내담자가 작성한 자신의 CCRT의 평정값(5점 척도), 상담자가 작성한 내담자의 CCRT(5점 척도), 그리고 축어록을 통해 분석된 내담자의 CCRT(5점 척도) 각각과의 차이점수에, 절대값을 계산하여 적절성의 점수로 산출한다. 즉, 상담자의 해석반응에 포함된 CCRT 요소와 내담자의 CCRT가 일치할수록 전이해석의 적절성 점수는 낮아지고 0에 가까워지며, 상담자의 해석반응에 포함된 CCRT요소와 내담자의 CCRT가 불일치할수록 전이해석의 적절성 점수는 높아지고 5에 가까워진다. 자료처리의 편의상 5에서 산출점수를 감산하여 역산(reverse) 점수로 바꾸었다.

상담자 해석반응에 포함된 CCRT 요소의 평정은 네 명의 평정자(임상심리전문가 2명, 상담전문박사과정 2명)가 하였으며, 회기 전체에 걸쳐 상담자의 반응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언급된 CCRT 요소를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자간 일치도는 소망(Kappa=.66 ~ .77), 타인반응(Kappa=.31 ~ .54), 자신반응(Kappa=.43 ~ .77)로 대체로 만족스러운 정도의 평정자간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작업동맹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위하여 내담자

의 건강한 자아와 상담자의 분석적이고 치료적인 자아간의 결합이나 협력(Gelso & Carter, 1994)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동맹 질문지(Working Alliance Inventory: 이하 WAI)를 사용하였다. WAI는 작업동맹에 관한 Bordin의 이론에 따라 Hovath와 Greenberg(1989)가 제작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목표합의(Goal), 과제동의(Task), 유대(Bond)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당 12문항으로 이루어진 7점 척도 질문지이다. 상담자용 WAI와 내담자용 WAI가 있다.

회기성과

상담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통해 얻은 내담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방금마친 회기의 즉시적 영향을 반영하는 ‘회기평가질문지’ 상의 점수로 회기성과를 측정한다. 회기평가질문지는 Stiles(1980)에 의해 개발된 상담회기의 즉시적 영향(session impact)을 측정하는 도구다. 가장 최신의 형태인 Form4(Stiles, 1989)는 3차의 개정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다. 이 질문지는 상담회기의 특징에 대해 평가하는 ‘깊이’, ‘순조로움’ 차원과 상담회기 직후의 정서적 상태를 평가하는 ‘긍정적 정서’, ‘각성도’ 차원 등 네 차원에 대해 각각 6문항씩 모두 24문항의 양극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7점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절 차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별된 상담자와 내담자는 매회기 상담내용을 녹음하고, 상담 회기를 마친 뒤 일련의 질문지와 평정에 응하도록 하였다. 매 상담회기를 마친 뒤, 상담자는 회기평가질문지(SEQ)를 작성하고, 치료회기점검표(TSCS)의 전이추

정 항목, 그리고 대인관계 평가척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작업동맹 질문지(WAI)는 매 3회기마다 실시하였으며, 회기를 마친 직후 작성한 작업동맹 질문지는 이후 뒤따르는 3개 회기에 대한 선행 질문지로 사용하였다. 내담자 역시, 매 상담 회기를 마친 뒤 회기평가질문지(SEQ)를 작성하였고, 매 3회기마다 작업동맹 질문지(WAI)를 작성하였다. 이들 질문지는 회기 녹음이 진행되는 동안(최소 연속 3회기, 최대 연속 12회기) 지속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동의서와 함께 첫 번째 상담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 수집 당시까지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전 협력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작업동맹 질문지(WAI) 작성토록 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첫 번째 상담회기를 마친 후, 상담자가 평가한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핵심갈등관계 주제 질문지에 대해 상담자가 평정토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내담자 역시 스스로 지각하는 핵심갈등관계 주제를 질문지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종결과 함께, 상담자는 상담자/내담자 인적사항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평정 절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평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자료수집 첫 번째 회기를 마친 후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기 평정하는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 질문지에 대한 평정이다. 둘째, 상담회기의 녹음 내용을 축어록으로 작성한 후, 내담자의 대인관계에 관한 이야기(관계일화)에 포함된 핵심갈등관계 주제를 제 3의 관찰자가 평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음된 상담회기의 축어록에서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에 대한 상담자의 해석 반응을 전문가가 평정한다.

결 과

작업동맹과 회기성과의 관계

먼저 작업동맹과 회기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직전 회기의 작업동맹과 해당 회기의 회기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작업동맹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작성한 점수로 회기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점수를 합한 전체 작업동맹 점수와 회기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회기성과 역시 상담자와 내담자가 자기 평가한 점수,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회기 성과점수를 합한 전체 회기성과 점수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작업동맹은 상담자가 평가한 회기성과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작업동맹과 상담자가 평가한 회기성과간에는 $r = .34(p < .05)$ 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내담자의 작업동맹과 상담자의 회기성과간에는 $r = .29(p < .05)$, 상담자의 작업동맹과 상담자의 회기성과간에도 $r = .36(p < .05)$ 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작업동맹은 회기성과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전이해석의 적절성과 회기성과의 관계

전이해석의 적절성과 회기성과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전이해석의 적절성 점수(일치성, 상응성, 정확성)와 회기성과 점수(전체, 내담자, 상담자)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상응성은 전체 회기성과와 $r = .35(p < .05)$ 그리고 내담자가 평가한 회기성과와 $r = .40(p < .05)$ 로 각각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일치성은 회기성과와 유의미한 상관은 보이지 않았으나 회기성과와 정적인 상관 경향을 나타냈다. 정확성은 회기성과와 유의미하

지는 않지만, 회기성과와 부적인 상관 경향을 나타냈다.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과 회기성과와의 관계는 상담자 해석의 적절성을 누구의 관점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회기성과와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핵심갈등관계 주제에 부합하는 상담자의 해석은 회기성과와 정적인 상관 경향을 보이는 반면, 관찰자인 평정자의

표 1. 작업동맹과 회기성과의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작업동맹	전체	43	382.9	40.8
	내담자	43	197.7	23.5
	상담자	43	185.2	24.4
회기성과	전체	43	349.5	33.4
	내담자	43	176.6	21.8
	상담자	43	172.8	17.9

표 2. 작업동맹과 회기성과간의 상관관계

작업동맹	회 기 성 과		
	회기성과 (전체)	회기성과 (내담자)	회기성과 (상담자)
작업동맹(전체)	.242	.097	.337*
작업동맹(내담자)	.235	.126	.290*
작업동맹(상담자)	.235	.063	.365*

주. N=43 * $p < .05$, ** $p < .01$

표 3. 전이해석의 적절성의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범 위
전이해석 일치성	43	60.5	6.20	47.4 ~ 73.5
상응성	43	60.6	8.61	39.6 ~ 81.7
정확성	43	92.0	4.47	80.5 ~ 102.8

표 4. 전이해석의 적절성과 회기성과간의 상관관계

해석의 적절성	회기성과		
	회기성과 (전체)	회기성과 (내담자)	회기성과 (상담자)
일치성(내담자)	.264	.248	.199
상응성(상담자)	.354*	.399**	.190
정확성(평정자)	-.194	-.171	-.160

주. N=43 * $p < .05$, ** $p < .01$

평정을 통해 평가된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 부합하는 상담자의 해석은 회기성과와 부적인 상관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해석이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의 핵심갈등 관계에 관한 가설과 부합할 경우, 긍정적인 회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핵심적 갈등관계에 대해 파악한 사례공식화(case formulation)와 상응하는 해석은, 순조롭고 깊이 있으며, 긍정적이고 각성된 것으로 상담회기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상담자의 해석이 내담자가 지각하고 있는 자신의 핵심갈등 관계와 부합할 경우, 상관이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긍정적인 회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내담자 자신의 핵심갈등관계에 대한 지각과 일치하는 해석은, 순조롭고 깊이 있으며, 긍정적이고 각성된 것으로 상담 회기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상담자의 해석이 축어록을 통해 관찰자가 평가한 내담자의 핵심갈등 관계와 부합할 경우,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회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담자의 정확한 해석이 회기성과와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는, 해석에 따르는 저항의 가능성과 해석의 내용을 받아들일만큼 충분한 훈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회기성과에 대한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적절성의 상호작용 효과

회기성과에 대해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적절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기성과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적절성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두 예언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예언변인을 사용한 중다회귀분석에서의 종속변인에 대한 변량의 설명량(R_1^2)을 계산하고, 이 회귀식에 두 예언변인의 상호작용항(두변인의 교적)을 추가한 중다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변량의 설명량(R_2^2)을 계산한다. 두 예언변인의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해 얻어진 종속변인에 대한 추가 설명 변량의 유의도를 F검증한다. 이때 종속변인에 대한 추가 설명 변량(즉, $R_1^2 - R_2^2$)이 유의미하면 두 예언변인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다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항은 두 예언변인의 곱으로 계산할 경우 예언변인과 상호작용항 간의 상관으로 인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하여 예언변인의 효과가 부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다(박광배, 1999).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각 변인의 편차점수(원점수 - 평균)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여,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적절성(일치성, 상응성, 정확성)의 상호작용이 회기성과를 의미있게 설명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회기성과는 내담자가 평가한 회기성과와 상담자가 평가한 회기성과 점수를 합한 전체 회기성과 점수로 분석하였고, 작업동맹 역시 상담자와 내담자의 점수를 합한 전체 점수를 사용하였다. 각

회귀분석에서는 모두 편차점수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의 특성상 중다회귀분석은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미성을 추가적인 설명 변량의 유의도를 통해 검증하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지만 상호작용의 형태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할 경우, 중다회귀 방정식에 따라 회귀선을 그려 상호작용의 경향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해석을 하였다. 중다회귀 방정식은 $Y = a + bX_1 + cX_2 + d(X_1X_2)$ 으로 표현되며, 각 항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준 회귀계수 (β)를 대입하여 회귀선을 작성하였다.

먼저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작업동맹에 따라 내담자가 작성한 CCRT와 상담자의 해석 반응에 포함된 CCRT의 부합정도를 측정된 일치성이 회기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작업동맹과 일치성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나타냈다.

작업동맹과 일치성의 상호작용 효과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 회귀계수를 대입한 중다회귀 방정식을 산출하였다. 중다회귀 방정식, $Y = a + (.274 \times X_1) + (.275 \times X_2) + (.288 \times X_1X_2)$ 에서 Y는 회기성과의 편차점수, a는 상수, X_1 은 작업동맹의 편차점수, X_2 는 일치성의 편차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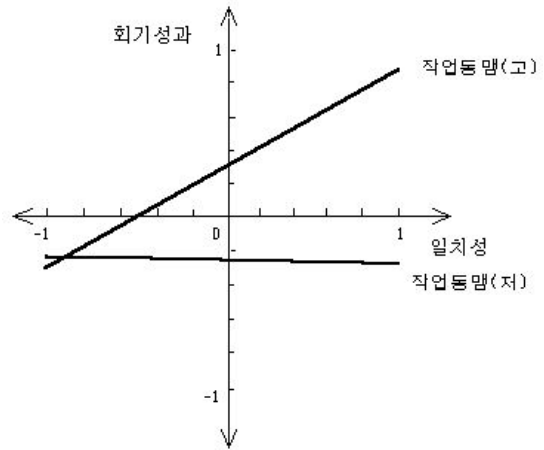


그림 1. 회기성과에 대한 작업동맹과 일치성의 상호작용

X_1X_2 는 작업동맹의 편차점수와 일치성의 편차점수의 곱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일치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작업동맹이 낮은 경우 전이해석의 일치성의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일치성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낮은 회기성과를 보였다. 이와는 달리, 작업동맹이 높은 경우에는 전이해석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높은 회기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이해석의 일치성은 전체적으로는 회기성과와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이지 않으나(표 4에서 $r = .264$), 작업동맹이 높은 경우에는 전이해석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회기성과가 높아지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작업동맹에 따라 상담자가 작성한 내담자의 CCRT와 상담자의 해석 반응에 포함된 CCRT의 부합정도를 측정된 상응성이 회기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작업동맹과 상응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회기성과에 대한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일치성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실시 결과

예언변인	R^2 1)	R^2 Change 2)	F 3)	유의도
작업동맹	.129	.129	6.06	.018
일치성	.188	.059	2.93	.095
작업동맹 × 일치성	.265	.077	4.10	.050

주. 1) 예언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회기성과 점수의 변량
 2) 예언변인의 추가로 인해 늘어난 회기성과 점수의 변량
 3) 추가로 늘어난 회기성과 설명 변량에 대한 F값

표 6. 회기성과에 대한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상응성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실시 결과

예언변인	R ² 1)	R ² Change ²⁾	F ³⁾	유의도
작업동맹	.129	.129	6.06	.018
상응성	.291	.162	9.16	.004
작업동맹 × 상응성	.337	.046	2.72	.107

주. 1) 예언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회기성과 점수의 변량
 2) 예언변인의 추가로 인해 늘어난 회기성과 점수의 변량
 3) 추가로 늘어난 회기성과 설명 변량에 대한 F값

표 7. 회기성과에 대한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정확성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실시 결과

예언변인	R ² 1)	R ² Change ²⁾	F ³⁾	유의도
작업동맹	.129	.129	6.06	.018
정확성	.148	.019	.90	.348
작업동맹 × 정확성	.229	.081	4.09	.050

주. 1) 예언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회기성과 점수의 변량
 2) 예언변인의 추가로 인해 늘어난 회기성과 점수의 변량
 3) 추가로 늘어난 회기성과 설명 변량에 대한 F값

작업동맹에 따라 축어록을 통해 분석한 내담자의 CCRT와 상담자의 해석 반응에 포함된 CCRT의 부합정도(정확성)가 회기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작업동맹과 정확성의 상호작용 효과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 회귀계수를 대입하여 산출한 중다회귀 방정식은, $Y = a + (.310 \times X_1) + (-.104 \times X_2) + (-.289 \times X_1X_2)$ 이며, 그림 2에 좌표로 표시하였다. 그림 2에서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정확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작업동맹이 낮은 경우 전이해석의 정확성이 높아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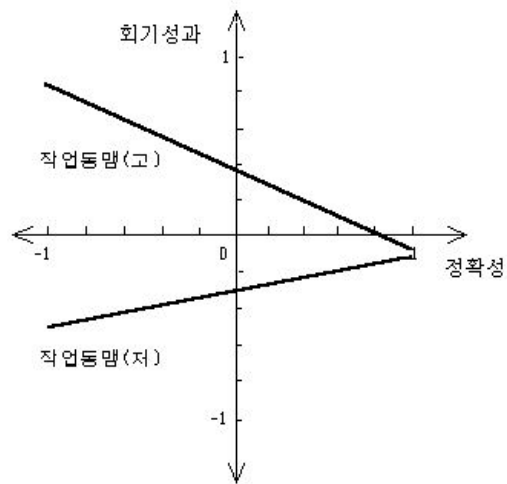


그림 2. 회기성과에 대한 작업동맹과 정확성의 상호작용

따라 회기성과는 다소간의 상승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낮은 회기성과를 보였다. 이와는 달리, 작업동맹이 높은 경우에는 전이해석의 정확성이 높을수록 급격히 낮은 회기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이해석의 정확성은 전체적으로 회기성과와 부적 상관 경향을 보이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표 4에서 $r = -.194$)와 함께, 전이해석의 정확성은 작업동맹에 따라 회기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작업동맹이 높은 경우에 정확성이 높을수록 급격하게 회기성과가 낮아진다는 결과는, 일치성에서의 상호작용 양상과는 다른 형태의 결과이다. 이는 저항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논의 부분에서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논 의

“작업동맹은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개입을 받아들이는 치료적 토대로 기능한다”는 Sexton과

Whiston(1994)의 명제나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충분한 합의와 작업동맹에 기초했을때만 해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Azim(1993)의 언급은 작업동맹에 따라 상담자의 개입이 상담성파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성파와 작업동맹 및 전이해석의 적절성의 관계를 밝히고, 상담성파에 미치는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동맹은 회기성파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기성파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작업동맹이 상담성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수많은 선행 연구결과들(Horvath & Symonds, 1991의 개관 참조)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된 것이다.

둘째, 전이해석의 적절성을 일치성, 상응성, 정확성이란 개념으로 측정하고, 각각 회기성파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상응성은 회기성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기성파의 변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상응성은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를 상담자가 상담초기에 정확히 개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상담성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수현(1995)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내담자를 전체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뒤에 이에 따른 치료목표가 설정되어야 그 이후의 치료진행이 순조로울 것이므로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정확히 빨리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의 전이해석이 상담초반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에 부합할수록 회기성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회기성파에 미치는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적절성간의 상호작용이 일치성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작업동맹과 일치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내담자가 보고한 핵심 갈등관계 주제에 부합하는 상담자의 전이해석은 그 자체로는 회기성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작업동맹과 상호작용하여 회기성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치성이 높은 상담자의 전이해석은 작업동맹이 높은 경우에만 높은 상담성파와 관련이 있으며, 작업동맹이 낮은 경우에는 일치성의 높고 낮음은 상담성파와 무관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의 해석은 견고한 작업동맹의 맥락 하에서 상담성파와 관련됨을 시사한다.

넷째, 작업동맹과 전이해석의 적절성의 상호작용 양상은 적절성이 측정되는 관점(내담자, 상담자, 관찰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작업동맹과 정확성의 상호작용은 작업동맹과 일치성의 상호작용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상담자의 전이해석이 제3의 평정자가 축어록을 통해 평정한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제와 정확히 부합될수록 회기성파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향은 작업동맹이 높을 경우 더 두드러짐을 보여주었다. 정확성은 상담자나 내담자의 관점이 아닌 제 3의 평정자가 파악한 내담자의 핵심 갈등관계 주제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로서는 상담자의 해석 내용이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의 핵심갈등관계 주제와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만일 평정자의 관점이 실제로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담자가 의식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깊이를 넘어선 것이므로, 그러한 상담자의 전이해석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부정적인 회기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조성호(1997)는 상담자 개입의 지시성이 높을수록, 깊이가 깊을수록, 그리고 위

협적일수록 저항은 더 커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Piper 등(1993)은 대인관계에서 미성숙한 내담자들은 정확한 전이해석 조차도 상담성가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의존을 보이는 사람, 실제 혹은 상상속의 상실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파괴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정확한 전이해석이 주어졌을 때 상담성가에 부적 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 된 결과 해석하면, 정확성이 높은 전이해석이 주 어질수록 내담자는 방어와 저항으로 대처할 가능 성이 높으며, 현재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 하는 내담자의 경우에 내담자의 핵심갈등관계 주 제를 상담자가 정확히 해석해 주는 것이 위협이 되며, 이러한 저항과 위협은 상담관계가 좋았던 내담자들에게 더 큰 실망과 좌절로 나타난 것으 로 추론된다.

요약하면, 작업동맹은 회기성과와 정적인 상관 이 있으며, 전이해석의 적절성은 일시성, 상응성, 정확성이 각기 회기성과와 서로 다른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담자의 전이 해석은 작업동맹에 따라 상담성가에 미치는 영향 을 달리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결과는 조 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의 수가 적고 자료수집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상담자 의 주요 접근 방법으로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하 는 상담자의 수가 많아, 역동적인 상담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례의 대부분이 대학 상담소에서 수집되었다는 표집의 문제가 있다. 또다른 제한점으로, 분석에 포함된 사례의 회기 는 상담단계 위치지표상 10~90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퍼져 있어, 동일한 상담단계에서 상담자 료를 수집하지 못했으며, 단기 상담 사례와 장기

상담 사례가 혼재되어 수집되었다는 문제가 있 다. 추후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이론적 입장, 내담 자의 호소문제, 상담이 행해진 기관(유료/무료, 대 학상담소/일반상담소 등), 상담기간(단기상담/ 장 기상담), 상담단계(초기/중기/후기) 등의 변수가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자료수집을 통해 오염변인의 개입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수현 (1995).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 CCRT와 PF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1995년 연차 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22.
- 김순진 (1998). 내담자의 대상관계 수준, 작업동 맹, 및 상담중 의사소통방식의 관계. 서울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광배 (1999).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 사.
- 윤순임 (1995). 정신분석치료, 현대 상담 심리치료 의 이론과 실제(pp. 13-81). 서울: 중앙적성출 판사.
- 조성호 (1997). 내담자 저항과 내담자 반발성, 상담 자 개입 특성 및 작업동맹과의 관계. 한국심 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101-127.
- 하정혜, 김계현 (1995). CCRT를 사용한 내담자 대 인관계 패턴의 측정: 소사례 종단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1), 117-137.
- Azim, H. F. A. (1993). Transference interpretation: For better or wors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7(4), 554-557.
- Barber, J. P., & Crits-Christoph, P. (1993). Advances in measures of Psychodynamic formu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 574-585.
- Bauer, G. P., & Kobos, J. P. (1984). Short-term psychodynamic psychotherapy: Reflections on the past and current practice. *Psychotherapy, 21*, 153-170.
- Cooper, A. M. (1987). Changes in psychoanalytic ideas: transference interpretation.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sis Association, 35*, 77-98.
- Foreman, S. A., & Marmar, C. R. (1985). Therapist actions that address initially poor therapeutic alliances in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922-926.
- Fretter, P. B., Bucci, W., Broitman, J., et al. (1994). How the patient's plan relates to the concept of transference. *Psychotherapy Research, 4*, 58-72.
- Gelso, C. J., & Carter, J. A. (1985). The relationship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mponents, consequences, and theoretical antece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 155-243.
- Gelso, C. J., & Carter, J. A. (1994). Components of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ir interactions and unfolding during trea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96-306.
- Gill, M. M. (1982). *Analysis of transference: Vol. I. Theory and techniqu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raff, H., & Luborsky, L. (1977). Long-term trends in transference and resistance: A report on a quantitative-analytic method applied to four psycho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5*, 471-490.
- Grunebaum, H. (1986). Harmful psychotherapy experi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0*, 165-176.
- Hoglund, P. (1993). Transference interpretations and long-term change after dynamic psychotherapy of brief to moderate length.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7*, 494-507.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3.
- Horvath, A. O., & Symonds, B. D. (1991).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2), 139-149.
- Joyce, A. S. (1992). *Assessing the correspondence of interpretation with the therapist's initial problem formul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Berkeley, CA.
- Joyce, A. S., & Piper, W. E. (1993). The immediate impact of transference interpretation in short-term individual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7*(4), 508-526.
- Joyce, A. S., Duncan, S. C., & Piper, W. E. (1995). Task analysis of 'working' responses to dynamic interpretation in short-term individual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5*, 49-62.
- Luborsky, L. (1998). The convergence of Freud's observations about transference with the CCRT evidence In L. Luborsky & Crits-Christoph (Eds.),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 (pp. 307-326).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 L., Barber, J. P., & Crits-Christoph, P. (1990). Theory-based research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281-287.
- Malan, D. H. (1979). *Individual psychotherapy and the science of psychodynamics*. Boston: Butterworth.

- Marziali, E. A. (1984). Prediction of outcome of brief psychotherapy from therapist interpretive interventi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1, 301-304.
- McCullough, L., & Winston, A. (1991). The Beth Israel psychotherapy research program. In L. Beutler & M. Crago (Eds.). *Psychotherapy research: An international review of programmatic studi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Piper, W. E., Azim, F. A., Joyce, S. A., & McCallum, M. (1991). Transference interpretation, therapeutic alliance and outcome in short-term individual psycho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946-953.
- Piper, W. E., McCallum, M., Azim, H. F. A., & Joyce, A. S. (1993).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erence interpretation and outcome in the context of other variable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7, 479-493.
- Ryan, E. R., & Cicchetti, D. V. (1985). Predicting quality of alliance in the initial psychotherapy interview.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3, 717-725.
- Ryan, V. L., & Gizynski, M. N. (1971). Behavior therapy in retrospect: Patients' feelings about their behavior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7, 1-9.
- Sexton, T. L., & Whiston, S. C. (1994). The status of the counseling relationship: An empirical review,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22, 6-78.
- Silberschatz, G., Fretter, P. B., & Curtis, J. T. (1986). How do interpretation influence the process of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646-652.
- Stiles, W. B. (1980). Measurement of the impact of psychotherapy ses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2), 176-185.
- Strupp, H. H., & Hadley, S. W. (1979). Specific versus nonspecific factors in psychotherapy: A controlled study of outcom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6, 1125-1136.
- Winston, A., McCullough, L., & Laikin, M. (1993). Clinical and research implications of patient-therapist interaction in brief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7, 527-539.
- 원고접수일 : 2002. 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6. 4
게재결정일 : 2002. 6. 14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retation of Client's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Working Alliance, and Counseling Outcome

Hee-Cheon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was an attemp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 interpretation of client's transference and counseling outcome. According to the psychodynamic theory, transference interpretation is the critical means for the change of the client and it closely relate with the counseling outcome.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had not showed any congruent result, which is thought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y did not consider the adequacy of transference interpretation and the therapeutic alliance between the counselor and the client. In other words, the adequate transference interpretation will be effective only when the counselor and the client have good working alliance. In this research, the transference is defined as client's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and examined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working alliance and the adequacy of transference interpretation on counseling outcom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eraction effects of working alliance and transference interpretation on counseling outcome through 43 counseling cases (86 sessions). The adequacy of transference interpretation was measured by three viewpoints (client, counselor, and observer), and estimated by the score of congruity, correspondency, and accuracy of transference interpretation. Results of the research indicate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working alliance and transference interpretation on counseling outcome exist, and the adequacy of transference interpretation has different effect on counseling outcome by the viewpoint of measurement.

Key Words :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transference interpretation, working alliance, counseling outcome